

2004년 8월

석사학위논문

# 집단미술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심 선 숙

# 집단미술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Self-Esteem of  
Schizophrenic Patients

2004년 8월 일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심 선 숙

# 집단미술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이 강 오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4월 일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심 선 숙

심선숙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인)

2004년 6월 일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v
<b>I. 서 론 .....</b>	<b>1</b>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목적 .....	3
C. 연구가설 .....	3
D. 용어의 정의 .....	4
<b>II. 이론적 배경 .....</b>	<b>5</b>
A. 미술치료 .....	5
B. 정신분열병 .....	6
C. 자아존중감 .....	7
<b>III. 연구방법 .....</b>	<b>9</b>
A. 연구설계 .....	9
B. 연구대상 .....	9
C. 연구도구 .....	10
D. 자료수집방법 .....	14
E. 자료분석방법 .....	14
F. 연구의 제한점 .....	14
<b>IV. 연구결과 .....</b>	<b>15</b>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
B.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 .....	16
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	18
D. 집단미술치료 전·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변화 .....	20
<b>V. 논의 .....</b>	<b>21</b>

VI. 결론 및 제언 .....	23
A. 결론 .....	23
B. 제언 .....	24
참고문헌 .....	25
부록 .....	28

## 표 목 차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
표 2. 집단미술치료 전·후 자아존중감 문항별 점수 .....	17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	19
표 4. 집단미술치료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 .....	20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개념적인 틀 .....	9
------------------------	---

## 부 록 목 차

부록 1. 설문지 .....	28
부록 2. 자아존중감척도 .....	30

# ABSTRACT

##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Self-Esteem in Schizophrenic Patients

Sim, Sun-Suk

Advisor: Prof. Lee, Kang-Oh

Major in Public Health Nursing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Health,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in schizophrenic and to supply the basic data in schizophrenic nursing. This study is similarity experiment research of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Research targets were 22 inpatients in a mental hospital in the Jeonnam area who agreed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y were conducted group art therapy program for 80 min per week for eight weeks. Data was collected from Jan. 5, 2004 to March 8, 2004. Pretest were conducted at the first week and pre-test were conducted after finishing 10-week program.

To verify collected data, SPSS/PC was generally use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esteem were verified using technical statistics; the difference in targets'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sing t-test and ANOVA; and the difference in targets' self-esteem before and after group art therapy, using paired-sample Wilcoxon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patients'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before group art therap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sex'(t=5.643, p= .030) and 'marital status'(t = 5.643, p= .030).

2. The patients'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fter group art therap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religion'(t=5.221, p= .035).

3. Self-esteem score was mean 2.38 before group art therapy and mean 2.87 after therapy, supporting research hypothesis that schizophreniac patients' self-esteem would increase after group art therapy(z= 3.413, p= .001).

The results suggest that group art therapy promoted schizophreniac patients' self-esteem. Accordingly, group art therapy will be used as a useful tool for schizophreniac patients.

## **SUGGESTION**

This author will suggest the following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1. It is needed to develop art therapy manual which can be used repeatedly in a different patient group in a mental hospital.

2. To evaluate long-term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and repeated.

# I.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정신장애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정신분열병이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에서 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신분열병은 뇌의 기질적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인지, 지각, 정동, 의지, 행동 및 사회활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서서히 발병을 하거나, 병전의 사회적, 직업적기능이 좋지 않았거나, 명백한 유발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나 경과가 만성적으로 변화한다(한국신경정신의학회, 1997). 정신분열병에 관련된 원인으로 정신사회적요인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 내적 영향과 대인관계 경험 및 발달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Lee & Kim, 2000).

정신분열병을 가진 사람들은 질환의 재발 및 만성화 경향 때문에 잦은 입원과 사회적 격리를 경험 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감을 잃고 대인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감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김철권, 1996; Liberman, 1988). 따라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관계를 맺기 힘들고 현실세계와의 접촉이 차단되기도 한다(서봉연과 이순형, 1995).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자아존중감은 저하되고 이는 결국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김진희와 송영선, 2003).

19세기말부터 정신과 영역에서 미술요법이 시작된 이후 미술을 통해 정신분열병을 진단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치료과정에 미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심리치료적 입장에서 미술치료의 도입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그림을 통해 정신병적 특성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최외선, 박현미, 김지현, 1998).

미술활동은 대상자가 자신의 정서적 장애를 극복하고자 시도할 때 대상자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은 생각들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매체로 작용되며(Marinich, 1993), 환자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탁월한 매개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미술작품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데 작품 속에 나타난 상징적

언어로서 환자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도록 도와준다(Couch & Kramer, 1995). 또한 매 회기의 작품을 완성함으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며 자존감도 향상된다. 특히 미술치료사의 적절한 개입에 의한 미술활동은 현실과 공상,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한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백양희와 송인진, 2003).

전통적으로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인다(정길수, 1999; 최외선 등, 1998)고 알려져 온 집단미술치료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서적, 행동적으로 위축된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자기표현(Hogan, 2000)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심리적 통찰과 지지를 촉진함으로써 간호중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리아(1999)는 만성적인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결과 중증의 정신분열병 환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심리상태를 진단하여 생각과 감정의 발산을 통한 치료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으며, 김동연과 정길수(1999)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의 총15회기에 걸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역동의 변화를 프로그램 내용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집단발달단계에 따라 연구대상 집단의 집단응집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요소에 있어서 의미있는 질적변화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들 연구는 정신분열병환자로 구성된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요법을 적용했을 때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고정자 등, 1998), 자기표현력이 향상되어 그 결과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정신분열병 환자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대인관계가 이루어졌음(최외선 등, 1998)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상윤(1998)도 정신질환자에게 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대인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길수(2003)는 집단미술치료가 입원한 만성정신질환자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11명은 6주간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군이 되었고, 14명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한 결과, 실험군의 부정적 행동 특성(자극민감성, 정신증적 증상, 지연성, 우울), 그 중에서도 자극민감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신간호 영역에서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미술치료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상윤, 1998; 정

길수, 1999)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양적 측정은 집단미술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의 복잡성을 규명하는데 부적절하며(Hagood, 1990) 실험적 통제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질적인 연구접근법이 제안되고 있다(Junge & Linesch, 1993). 그러나 그러한 접근법을 통해서도 미술치료의 과학적 정당성을 보증하기 어렵고 미술치료가 가진 치료적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환자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자기표출향상과 무의식화된 억압들을 통찰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의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정신분열병 환자의 재활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정신간호실무에 그 적용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를 파악한다.
3.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파악한다.

## **C. 연구 가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후에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질 것이다.

## D. 용어의 정의

### 1. 집단미술치료

미술창작활동을 제시하여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내담자의 마음이 진정되게 하여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느끼게 돌보아 주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해 가는 치료기법을 의미한다(김동연·최외선, 1994).

본 연구에서는 정길수(1999)가 사용한 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매회 80분으로 주 1회 10주간으로 이루어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2.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의 결정 기준은 3D 즉 진단(Diagnosis), 기간(duration), 능력부전(disability)을 포함한다. 정신분열병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여 인간의 인지, 지각, 정동, 의지, 행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정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 사회적, 직업적으로 역할에서 기능의 손상이 있으며 어느 정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김청송, 2002).

진단은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Axis I에서부터 Axis II까지 걸쳐 있다(이근후, 1989).

본 연구에서는 DSM-IV의 진단기준(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 의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고 전남지역 1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여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가를 의미 한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자아존중감과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A.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유형으로, 상담 도중에 내담자의 상태를 보아가며 여러 가지 미술창작활동(그림, 조소, 디자인, 서예 등 미술 전 영역 포함)을 제시하여 내담자들의 객관적이고 의식적인 서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해 가는 효과적인 치료기법이다(김동연·최외선, 1994).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사고를 체계화시키는 인지적 목적 이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 역동적 접근법에서는 미술, 몸짓, 얼굴표정, 무언극 등의 비언어적인 것이 대부분이다(김진숙, 1993)

미술치료가 가진 장점을 살펴보면, 환자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에 있어 탁월한 매개체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환자들의 미술작품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데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가 상징적 언어로서 환자의 내적 심리상황을 표현 하도록 도와주며(주리아, 1999), 그 중에서 회화요법은 말보다 심층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어 좋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그리는 일 자체가 창조적 활동 정신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므로 치료적 효과가 있다(김진희·송영선, 2003)는 연구 보고가 있다.

Kramer(1971)는 창조적인 과정이 자기 인식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으며,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은 이들은 작업 방법과 형태가 모두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독특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집단치료에서의 “집단”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집단이라고 했다. 또한 집단치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고립감과 외로움이 감소한다고 했다.

Malchio(1990)는 집단미술활동이 수치심을 없애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김동연·이성희, 1997), 집단치료과정에서 사람들은 좀더 가까워지면서 집단 성원들 모두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통이 자신에게만 독

특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최선남(1997)은 자존감이나 자아개념을 강화시키기 위한 미술치료에서는 미술 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하기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미술활동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했으며, 주리아(1999)는 일반적으로 미술 매체를 사용한 자기표현은 검열과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통찰이 더 용이하다고 보았다.

최근 다양한 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미술 치료를 고유한 심리치료 중재기법으로 정착시키고자 애쓰고 있고, 간호학에서는 이미 정신병원이나 기타의 임상장면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미술치료가 시행되어 오고 있어 미술치료가 하나의 독자적인 간호중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B. 정신분열병

정신질환자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진단기준으로 정신분열병이나 기타 정신병, 중증의 우울증, 정동장애 등이 포함되며, 지속기간으로 1년이상 입원경험이 있으며, 무능력의 기준에서는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기능장애를 가질 때를 의미한다(이정숙 과 김수진, 정신간호학회지 2002).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특징은 다른 정신장애 환자보다도 정신내적기능, 성격구조 및 인간관계에 있어 대단히 심각한 장애를 보여준다(김혜영, 1998).

정신분열병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여 인간의 인지, 지각, 정동, 의지, 행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정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한국신경정신의학회, 1997) 증상으로는 크게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구분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며, 1개월 이상의 활성기 증상이 있어야 한다. 즉 망상이나 환각, 와해된 언어,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중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야 한다(김청송, 2002). GAF (Global Accessment Function)는 현재의 적응능력과 과거 1년간의 적응능력을 평가하는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로서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하며, GAF점수에 따라 정신장애 1급(40점이하), 2급(41-50점 사이), 3급(51-60점 사이)으로 구분한다. 61점에서 70점 수준에서는 약간 경미한 증상(예 우울증, 경도의 불면증)과 일부 의미있는 대인관계를 유지 그리고 경미한 수준의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로 잘 기능한다고 한다.

정신분열병의 증상의 정도와 경과는 생물학적 취약성과 스트레스 대응 능력인데 생물학적 취약성 때문에 자주 재발을 일으키는 만성정신질환으로 신경정신 약물치료는 그러한 재발을 악순환을 막는데 효과적인 치료방법이고,(이성동과 김상준, 1999) 그 외 여러 가지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이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20-3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정신재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Bellack, Tuner, Hersen, Luber, 1984).

### C.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변인으로서, 자아의 다양한 요소들이 나름대로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이루고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총체적 자아가치감이라고 정의하였다(Rosenberg, 1965).

또한, 최경숙(2000)은 인간은 발달하면서 자신에 대해 점차 이해하게 되고 복잡한 자아상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자기에 대한 평가적 측면을 자아존중감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우리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것으로, 황찬구(1988)는 자아존중감을 일반적인 자아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계인 사회적 자아존중감, 교사나 동급생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느끼는 대로 표현한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원만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나타낸 가정의 자아존중감 등 4개의 요인으로 세분



화하여 보고 있으며, 이들 4개의 하위요인을 모두 합하여 총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내고 있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여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가를 말한다고 보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활동적이고 표현이 풍부하며 학업에서나 사회적으로 성공적이다 (Coopersmith, 1967)고 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움츠러들어 집단에 참가하지 않고 절망적이며 소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비판에 의해 쉽사리 기가 죽고 감정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중심적이다. 또한 사회적 접촉을 갈망하지만 서투르게 시도하다가 친근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동료집단으로부터 더 멀리 소외되는 수가 많다.

### Ⅲ. 연구방법

####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 단일 집단 사전 사후설계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서, 연구 설계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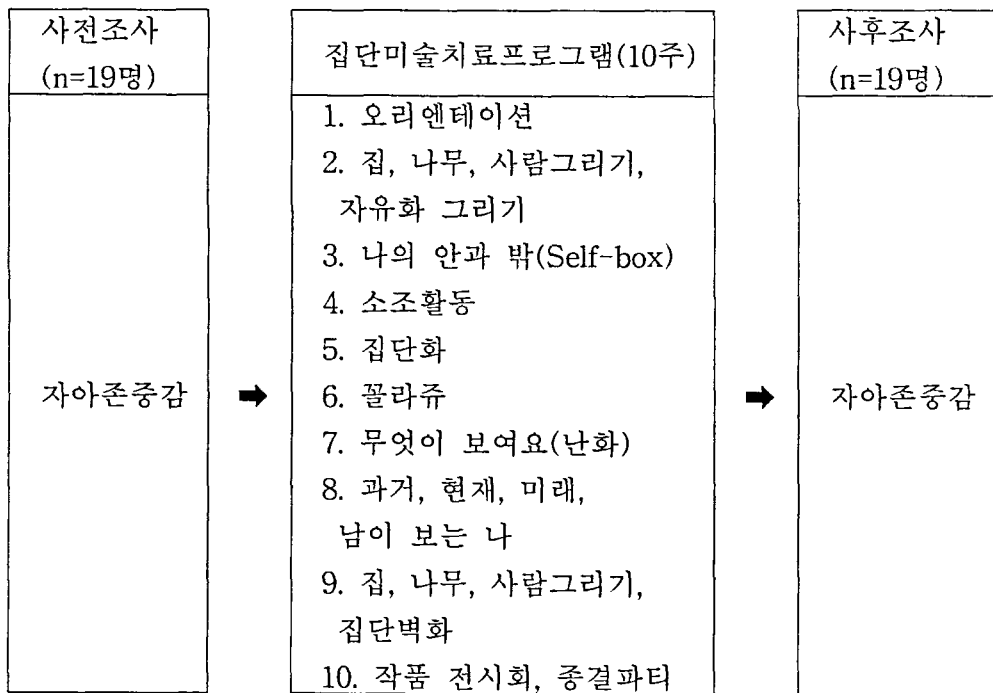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설계모형

####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4년 1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전남지역 1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 중 DSM-VI에 의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기능평가 (Global Assessment Function: GAF) 점수가 41-50점 사이의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프로그램 시작 전 질문지를 배부하여 사전조사를 하였고, 한 집단에 11명씩 2개 집단으로 나누어 주 1회, 80분씩, 총 10회, 10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정신과 의사에 의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환자(DSM-IV 기준)로 신체질환이 없고 정신지체가 아닌 자.
- (2) 급성증상이 소실되고 기능평가 점수 41-50점 사이로 자기평가척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
- (3) 질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4) 연령은 만19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 (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 C. 연구도구

### 1.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 4점 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부터 최고 40점까지이며, 부정 문항인 4문항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재 부호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5$ 이었다.

### 2. 집단미술치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의 임상사례 경험과 한국미술치료학회에서 편찬한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1994), 김진숙의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1933) 등을 참고하였고, 정길수(1999), 김광숙과 정미숙(1999)이 사용한 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준비활동(5-10분)은 대부분 대상자의 자발성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신체적 이완을 도모할 수 있는 동작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본 활동(20-40

분)은 주로 집단응집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창작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매 회기마다 연구자가 제시한 미술과 제나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집단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나눔활동(10-30 분)은 집단원들이 매번 집단미술활동을 통해 경험한 생각과 느낌들을 정리하도록 돕는 시간으로 완성된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게 하였다.

■ 회기별 활동계획

회기	주제	활동내용	기대효과
1회	·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애칭, 별칭 정하기) · 함께 부를수 있는 노래 합창하기 · 미술치료에 대한 소개, · 사전 자아존중감 측정	· 참여자 서로를 알게 함. · 집단구성원이 가까워 지는 시간을 가짐 · 성격 및 심리 상태 파악
2회	· 집, 나무, 사람그리기 · 자유화그리기	· 한 장의 종이에 나무, 집,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 그리기 · 가장 자신 있는 것 그리기	· 미술활동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자신감 증진
3회	나의 안과 밖 (Self-box)	· 빈 상자를 이용해 밖은 '남이 보는 나' 안은 '내가 보는 나'를 풀라쥬로 표현하기	· 자신의 외면과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도와줌
4회	소조 활동	· 찰흙으로 만들고 싶은 것 만들기	· 긴장 이완과 감정 순환
5회	집단화	· 소집단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통작품 구성	· 집단원 간의 친밀감, 협동심
6회	풀라쥬	·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과 버리고 싶은 것을 풀라쥬로 표현하게 한 후 발표하고 토론	· 자신을 개방하고 감정을 표출시킴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증가
7회	무엇이 보여요(난화)	· 은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갈등, 욕구 등의 내적체험을 객관적으로 표현케 함	· 표현에 대한 저항감소 · 자기 정서 상태를 이해

회기	주제	활동내용	기대효과
8회	과거, 현재, 미래, 남이 보는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표현하기</li> <li>·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폴라쥬로 표현(곡류모자이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자아 인식 및 집단원 간의 이해 증진</li> <li>· 자신의 모습 새로 정립</li> </ul>
9회	집단벽화 · 집, 나무, 사람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집단별 자유주제로 미리 주제를 정하지 않고 공동벽화 그리기</li> <li>· 한 장의 종이에 나무, 집,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 그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활동 과정을 통해 역동적인 협동성 증진/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존중받고 상대방을 인정하게 됨</li> </ul>
10회	작품전시회 종결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경험에 대한 소감 작성과 나눔</li> <li>· 각자의 차원에서 달성한 과제가 무엇인지 평가</li> <li>· 치료 후 심리 상태 변화 분석</li> <li>· 사후 자아존중감 측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지속하기</li> <li>· 집단원 상호간의 감사한 마음 갖고 치료적 종결을 도움</li> </ul>

## D. 자료수집방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시행은 2004년 1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로, 해당 병원 간호과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얻은 후, 한 집단에 11명씩 2개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얻은 후, 주 1회, 80분씩, 총 10회, 10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 질문지를 배부하여 사전조사를 하였고, 10주간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한 19명에게 사후조사를 하여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 E.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후의 자아존중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Wilcoxon test을 사용하였다.

## F. 연구의 제한점

1. 연구대상을 일 병원에 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로 국한시켰으므로, 전체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2. 프로그램 시행 기간 중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생활 사건들이 외생 변수로 개입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 IV. 연구결과

###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3명(68.4%), 여자 6명(31.6%)으로 남자가 많았고,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1.89세로 30세 이상 10명(52.6%), 30세 미만 9명(47.4%)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상 11명(57.9%), 중졸이하 8명(42.1%)이었고, 결혼상태로는 미혼 13명(68.4%), 기혼 6명(31.6%)으로 미혼이 더 많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 15명(78.9%), 종교가 없는 경우 4명(21.1%)으로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발병연령은 20대 13명(68.4%), 10대와 30대가 각각 3명(15.8%)이었으며, 동거인으로는 부모 12명(63.2%), 배우자 3명(15.8%), 형제와 독거가 각각 2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성 별	남	13	68.4
	여	6	31.6
연 령(세)	<30세	9	47.4
	≥30세	10	52.6
학 력	~중졸	8	42.1
	고졸~	11	57.9
결 혼	미혼	13	68.4
	기혼	6	31.6
종 교	유	15	78.9
	무	4	21.1
발 병 연 령	10대	3	15.8
	20대	13	68.4
	30대	3	15.8
동 거 인	부모	12	63.2
	형제	2	10.5
	독거	2	10.5
	배우자	3	15.8
	계	19	100.0



## B.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표 2와 같다.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38점이었고,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최대 평균 평점 4점 만점에 3.21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2.95점이었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로 1.63점으로 나타났다.

집단미술치료 실시 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87점으로 사전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각각 3.58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2.16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집단미술치료 전·후 자아존중감 문항별 점수

문 항	치료 전		치료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5	0.85	2.74	0.93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63	0.68	2.53	0.96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 이라는 느낌이 든다.	2.89	0.74	3.58	0.61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2.11	1.00	2.32	1.00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2.95	0.98	3.26	1.00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79	0.63	2.53	0.96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00	0.75	2.74	1.05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2.42	0.96	2.16	0.90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89	0.81	3.26	0.65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21	0.71	3.58	0.69
전 체	2.38	0.42	2.87	0.53

### 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표 3과 같다.

미술치료 실시 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t=5.643, p=.030$ )과 결혼상태( $t=5.643, p=.03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남자 2.52점, 여자 2.08점으로 남자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미혼 2.52점, 기혼 2.08점으로 미혼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미술치료 실시 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 $t=5.221, p=.035$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종교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종교가 없는 경우 3.35점, 종교가 있는 경우 2.74점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특성	구분	치료 전				치료 후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성별	남	2.52	± .41	5.64	.030*	3.01	± .48	3.23	.090
	여	2.08	± .28			2.57	± .53		
연령 (세)	<30	2.50	± .40	1.32	.267	2.81	± .55	0.19	.666
	30 ≥	2.28	± .43			2.92	± .53		
종교	유	2.31	± .34	2.64	.122	2.74	± .44	5.22	.035*
	무	2.68	± .62			3.35	± .60		
학력	~ 중졸	2.36	± .47	0.04	.854	2.78	± .70	0.42	.526
	고졸~	2.40	± .40			2.94	± .38		
결혼	미혼	2.52	± .42	5.64	.030*	2.91	± .57	0.22	.646
	기혼		2.08			± .23	2.78		
발병 연령	10대	2.40	± .35	0.62	.552	2.30	± .52	2.43	.120
	20대	2.44	± .46			2.96	± .51		
	30대	2.13	± .29			3.03	± .25		
동거 인	부모	2.34	± .38	3.12	.057	2.77	± .44	3.23	.052
	형제	3.10	± .28			3.75	± .35		
	독거	2.15	± .49			2.50	± .42		
	배우자	2.23	± .12			2.93	± .55		

\* p < .05

#### D. 집단 미술치료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대응표본 Wilcoxon test로 검증한 결과, 미술치료 실시 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38점이었으나 실시 후에는 자아존중감 정도가 평균 2.87점으로 나타나 0.49점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z=3.413$ ,  $p=.001$ ). 따라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질 것이다’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4).

표 4. 집단미술치료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대응표본 wilcoxon 검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Z	p
사전	19	2.3842	.42067	1.80	3.30	3.413	0.001
사후	19	2.8684	.52710	1.70	4.00		

	실수	평균순위	순위합
사후 - 사전	음의 순위	1a	4.50
	양의 순위	16b	9.28
	동률	2c	
	합계	19	148.50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전 = 사후

## V. 논의

현대사회는 기질적, 비 기질적 원인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정신분열병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약물, 비 약물요법들이 그들의 치료에 사용되어지고 있고, 비 약물치료법 중 하나인 활동치료는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김철권·변원탄. 1995).

정길수(1999)는 정신분열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후에 그 효과로서 강박증과 대인예민성 증상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이상윤(1998)도 정신질환자에게 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대인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연구 결과 정신분열병환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4점 만점에 미술 치료 실시 전 2.38점, 실시 후 2.87점으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연구사례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연구한 유옥현과 이근매(2003)의 연구에서는 실시 전 52%, 실시 후 54%, 그리고, 이근매(2001)의 실시 전 36점, 실시 후 43점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된 연구와 유사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 차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길수(2003), 백양희와 송인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한국의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은 불만이 있거나 힘들더라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에 감추다 보니 자아존중감도 더불어 저하되는 것이 아닐까 사료 된다. 여성들이 적절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구조개선과 여성스스로의 정신적 자각이 필요하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령에서 20대 이하의 비율이 30대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정신분열병이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에 발병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

료를 할 수 있는 체계와 여건을 만들어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술치료 실시 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38점이었으나 실시 후에는 자아존중감 정도가 평균 2.87점으로 나타나 0.49점 증가하였으므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 $t=3.130, p=.003$ ). 이 결과는 최선남(2001)의 적응장애 아동과, 유옥현과 이근매(2003)의 알콜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백양희와 송인진(2003)의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Marinich(1993)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미술치료는 입원한 정신분열병환자의 대표적인 활동치료의 하나로 정신사회적 간호접근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보조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환자들은 사회적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를 심한 압박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환자를 현실세계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점진적이면서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백양희·송인진, 2003).

미술치료는 개인의 정신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질서를 형성시키고 내면의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하여 자신에게로 향하는 에너지와 외부세계로 향하는 에너지의 합일로 정신분열병환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약물치료와 더불어 정신치료를 함께 해주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환자와 치료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환자의 현실감을 회복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하나인 미술치료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여된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치료적 중재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VI. 결론 및 제언

### A. 결론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정신간호실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인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전남 지역 1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상자로 연구목적에 동의한 22명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80분씩, 주 1회, 10주 동안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월 5일부터 2004년 3월 8일까지이었으며, 첫 주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주간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t-test와 ANOVA,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는 대응표본 Wilcoxon test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는 '성별' ( $t=5.643$ ,  $p=.030$ )과 '결혼상태' ( $t=5.643$ ,  $p=.03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집단미술치료 실시 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는 '종교' ( $t=5.221$ ,  $p=.03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2.38점, 실시 후 평균 2.87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정신분열병환자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z=3.413$ ,  $p=.001$ ).

이상의 결과에서 집단미술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켰다. 그러므로 집단미술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집단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집단미술치료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직 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고정자, 이미옥, 이금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기이해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 미술치료연구』, (1998), 5(2), p93~124.
- 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가족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1993) (서울: 특수교육.)
- 김동연, 『장애아동의 특성과 미술교육. 특수아동교육』, (1989). 16(9), 162-165.
- 김동연, 『특수아동의 미술활동. 특수아동 교육』, (1990), 17(3), p42~44.
- 김동연, 공마리아 편역. 『인물화 및 집, 나무, 사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법, 한국미술치료학회지』, (1998), 6(2), p173~196.
- 김동연, 김진숙.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3).
- 김동연, 류정자. 『미술치료 연수회 자료집』, (1994), 5(1), p229~240.
- 김수진.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효능 기대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997), 5(2), p121~140.
- 김진희, 송영선.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003), 12(1), p47~55.
- 김철권. 『병원에 기초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정신재활치료. 정신보건』, (1996), 1(1), p22~47.
- 김철권, 변원탄. 『만성정신과 환자를 위한 정신재활』. (서울: 신한. 1995).
- 김철권, 변원탄. 『정신과 환자를 위한 사회기술훈련』. (서울: 하나의학사 1996).
- 김청송, 『정신장애 사례연구』. (서울: 학지사. 2002).
- 김형연. 『사회기술훈련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미치는 효과.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과학초판』, (1997), p574~578.
- 박태권, 최세진 연구 : 『그의 언어학적 업적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73), p39~40.
- 백양희, 송인진. 만다라를 통한 자기통찰이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자기

- 주장과 대인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03), 10(2), p85~110.
- 서봉연, 이순형,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9).
- 여광웅, 임지향. 『정신지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족기능과 가족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2000), 35(2), p69~85.
- 유옥현, 이근매. 미술치료가 알콜중독자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03), 10(2), p65~83.
- 이근후. 『DSM-IV 정신장애의 분류와 진단편람』. (서울: 하나 의학사, 1989), p64~65.
- 이상윤. 『미술요법프로그램을 이용한 간호중재가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1998), 17(4), p67~75.
- 이성동, 김상준. 『만성정신분열증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 하나 의학사, 1999).
- 이정숙, 김수진.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사례관리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2), 11(2), p206~220.
- 전미향, 최외숙.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998), 5(1), p95~120.
- 정길수. 『집단미술요법이 만성정신분열병 입원환자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정길수. 『집단미술요법이 입원한 만성정신질환자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2003), 10(3), p409~425.
- 주리에, 『만성적인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지』, (1999), 6(2), p1~15.
- 최선남(1997), 『적응장애 아동의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지』, 4(2), p143~152.
- 최외선. 『성인미술치료』 (대구: 동아문화사, 1993).
- 최외선, 박현미. 『사회부적응 청소년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998), 5(1), p48~56.
- 최외선, 박현미, 김지현.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998), 5(2), p163~190.
- 한국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과학』. (서울: 하나의학사, 199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 Bellack, A.S., Tuner, S.M., Hersen, M., & Luber, R.F. . An examination of the efficacy of social skills training for chronic schizophrenec patient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5. (1984).
-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1967) p19~44.
- Hogan, S. British art therapy poineer Edward Adamson: Anoninterventioninst approach. *History of Psychiatry*, (2000), p259~271
- Kramer, E.. Art and art therapy and the seductive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San Diego, CA. (1995).
- Lee, Y.H. & Kim, J.S.. Major Effect Models of Social Support and Its Statistical Methods in Korean Nursing Research.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0), 30(6), p1503~1520.
- Liberman, R.P. . *Psychiatric rehabilitation of chronic patients*.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1988).
- Marinich, P.. *Art therapy : its use in hospital treatment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asters Thesis (M.A). (1993).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ceton University press, (1965).
- Tate, F. B. & Longo, D. A. Art therapy: enhancing psychosocial nursing.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2002), 40(3), p40~48
- Vaccaro, J.B., Liberman, R.P., Wallace, C.T. & Blackwell, G. Combining social training and assertive case management: The social and independent living skill program of the Brentwood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New Direc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s*, (1992), p33~43.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 석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집단미술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정신분열병환자 간호와 치료에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연구 이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설문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밀로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응답해 주신 설문지의 결과는 정신분열병환자 간호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과

연구자 심 선 숙

▣ 다음은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 )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
  
2. 귀하의 연령은? : ① 30세 미만( )    ② 30세 이상( )
  
3. 귀하의 종교는? : ① 유( )    ② 무( )
  
4.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미만( )    ② 고졸 이상( )
  
5. 귀하의 결혼상태는? : ① 미혼( )    ② 기혼( )
  
6. 귀하의 질병 발병연령은?  
① 10대( )    ② 20대( )    ③ 30대( )
  
7. 귀하의 동거인은 ?  
① 부모( )    ② 형제( )    ③ 독거( )    ④ 배우자( )

부록 2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

작성일:       년    월    일       이름:                   평가자: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

-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
-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
-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